

정례브리핑

2020.3.6(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주요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 친서 관련해서 혹시 정부가 후속조치 준비 중인 게 있나요?

<답변>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대로인데요.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준비한다기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여정 부부장의 논평 있고 나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들어온 것 같은데 비판 뒤에 바로 위로 친서를 보낸 의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의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위로 차원으로 둘 간의 관계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상호존중의 자세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개시와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노력한다는 정부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남북 보건협력 관련된 회담 검토 중인가요?

<답변>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요청이나 남북협력 관련 구체적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내상황, 북한상황, 국제사회 지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회담을 검토 중이진 않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중국 샤오미로 적십자회 통해서 매일 마스크 100만 장 불법 수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혹시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정부는 금번 코로나19 관련해서 북한에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내 민간 단체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북한에 마스크나 비접촉 체온계 지원을 위

해 반출신청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

<질문> 좀 전에 둘 간에, 김정은 친서 관련해서 둘 간에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는 게 김여정 담화와 그 다음날 김정은 친서가 관계가 상관 관계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셨다는 거죠?

<답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김여정 담화 하루 뒤에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을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위로 차원으로 둘 간의 관계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게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끝>